11

양한 끼와 재능을 함께 나눌 예정이

이번 축제에서는 또 광양읍과 중

마동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교

류하는 시간을 갖고, 기성세대와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조영진 청년정책팀장은 "이번 축

제에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관심

을 갖고 참여해 지역은 물론 세대 간

격차도 좁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청소년들 끼

보러 오세요

광양시가 주최하고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주관하는 '푸른성장 청

소년 대축제'가 10일 오후 2시부터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에는 청소년과 시민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청소년

활동 전시회와 동아리 공연, 지역 청

소년 초청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예

선을 거친 15개 청소년팀이 참여하 며,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으로 다

광양시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6 송 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윤수일 5인조 밴드와 최성수, 최근 '내 맘 잡아주오'로 주목 을 받고 있는 신인가수 김주아 등이 출

연해 수준 있는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

또 열정적인 연기력과 무대를 압도

하는 발성의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호

평을 받는 테너 김철호와 프랑스 에꼴

노르말 음악원 고등성악과 과정을 졸

업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

라노 강명숙 등 실력파 음악가들이 대

에서 열린다.

내일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 15개 팀 다양한 공연

광양시 15일 송년음악회…감동과 추억 선사

다.

'한진사태' 타격 딛고 광양항 물동량 회복세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수도권 전방위 마케팅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86.5 항차로 작년 수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등으로 위축된 광양항의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가 회복 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8일 "광양항을 오 가는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가 주당 86.5

항차(횟수)로 작년 수준(87항차)을 회복했 다"고 밝혔다.

제20388호

지난해 말 기준 87항차였던 광양항의 항 차수는 올 들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및 회생절차 개시 이후 한진해운 8항차 감소 등으로 89항차에서 81항차까지 감소하는 사태를 겪었다.

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광양항 인센 티브를 확대하는 등 항차수 회복에 노력해 왔으며, 현대상선 등 대체선박 투입과 홍 콩 인트라선사인 소패스트 선사(SO→ FAST Shipping Ltd.)의 신규서비스 투 입 등을 이끌어내면서 86.5항차를 회복했

공사는 특히 한진해운 서비스 노선 감소 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원양항로 개설 지원금 15억원(항차 당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환적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선 사 인센티브 단가를 기존 컨테이너 1TEU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만~1만5000원 에서 1만5000~2만5000원으로 확대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90항차 를 목표로 찾아가는 임원마케팅, 선사별

모니터링, 화주 본사 중심의 수도권마케팅 강화는 물론 화주 불편해소 센터 구축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컨테이너 물 동량 창출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송정익 여수광양항만공사 마케팅팀장 은 "인트라아시아를 중심으로 광양항 정 기선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 로 촘촘한 피더 네트워크(연근해노선) 구 축으로 미주 등 원양 서비스 유치에도 적 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 보육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광양시가 보육업무 최우수 기관으로 선

광양시는 "최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 파크서울에서 열린 '2016 전국보육인 대 회'에서 보육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

〈사진〉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민선 6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임신에 서부터 출산, 보육, 교육 과정에 이르는 생 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실제 올해 '제22회 광양시민 의 날' 행사에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난달에는 전 국 최초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조례' 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유니 세프 인증을 목표로 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양육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정현복 광양시장은 "다양한 보육시책 을 꾸준히 추진해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 이를 키우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 복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광양 구봉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광양만 야경

23~25일 느랭이골 리조트~구봉산 전망대 코스 운영

광양시는 "크리스마스 기간 가족과 연 인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선샤인 야경 투어를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 다"고 8일 밝혔다.

야경투어는 오후 5시 광양읍사무소에서 출발해 중마동 관광안내소(오후 5시30분 출발)를 거쳐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와 구봉 산 전망대를 돌아보는 코스로 운영된다.

느랭이골 자연리조트는 최근 LED조명 을 리모델링하는 등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빛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 구봉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광양

만·광양항의 멋진 야경도 일품이다. 야경투어는 1회당 4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광양시 관광안내소(061-797-3333)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버스요금과 느랭이골 입장 료를 포함해 성인기준 7000원이며, 14세 미만 어린이는 6000원이다.

김문수 광양시 문화관광과장은 "지난 여름 시범 운영한 야경투어가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 야경투어를 준비 하게 됐다"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거 출연해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아름 다운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는 2016 송년

음악회 관람료는 5000원이며, 지난 5일 부터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사전 예매 /광양=김경원기자 kkw@

광양시 제6기 블로그 기자단 18일까지 30명 모집

광양시는 "뛰어난 기획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광양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줄 '2017년도 제6기 광양시 블로그 기자 단'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블로 그를 포함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블로그 기자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부터 1년동안 시의 주요정책은 물론 축 제, 여행, 역사, 미담사례 등 생생한 지 역소식을 취재해 블로그 등 SNS를 통

해 시민에게 알리게 된다. 광양시는 기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기사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와 우 수 블로그 기자 시장 표창, 축제·행사 및 각종 시설 취재지원, 간담회 및 1박2 일 팸투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www.gwangyang.go.kr) 또는 광양시 블로그(http://gwangyang. blog.me)에서 지원서와 제출서식을 다 운받아 작성후 전자우편(gwangyangsi @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27일 광양시 홈 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 /광양=김경원기자 kkw@

광양시 내년 국가예산 3152억 확보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 정부안보다 4건 41억 추가

광양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정부안 보다 4건 41억원이 추가된 3152억원을 확 보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 예산은 ▲다목적 복합체 육관건립 13억원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 성화사업 3억4000만원▲진월면 농촌중심 지 활성화사업 3억4천만원 ▲공설운동장 등 우레탄 트랙 교체 10억원 ▲옥곡천생 태하천복원사업(2단계) 3억원 ▲마동저수 지생태공원조성사업(2단계) 1억5000만 원 등이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사업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성황지구 연결 도로 개설 6억원 ▲세풍 일반산단 폐수종

말처리시설 설치 5억 원 ▲기능성 화학소 재 클러스터 구축 85억원 ▲중군~진정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270억원 등 4건 이다.

국회에서 증감 없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덕례~용강간 국도 4차로 확장사업 165 억원 ▲세풍~중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38억원 ▲광양항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정비 25억원을 포함한 광양항 관련 사업비 603억원 ▲세풍산단 진입도로 57 억원 ▲황금산단 진입도로 62억원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